

“바로 보고 바로 알지”

연민이 /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원, 자유기고가



청소년시기에는 신체적인 급성장과 함께 성에 대한 인식이 비로소 진지하게 싹트기 시작하는데 이때 확립된 청소년의 성인식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성관(性觀), 성행동을 지배하게 된다.

무엇보다 왜곡된 성인식을 아무런 여과없이 전달 받은 청소년이라면 나중에 잠재적인 성폭력 가해자로 전이될 소지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시기의 성인식과 바람직한 성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연재기획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문화를 진단해보고 바람직한 성문화를 가꾸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성교육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 편집자 주

(발문)

“과연 청소년들이 자기정립적인 성인식을 갖고 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가 우려되며, 이들의 성행동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폭력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어 더 문제”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로 인해 청소년들은 바람직한 성문화를 갖지 못하고 사회의 성통념들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성의식과 성행동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성에 관해 아주 부지한 이른바 ‘숙맥’이 있는 반면 지나치게 밝혀서(?) 속칭 ‘까졌다’고 하는 아이들의 두 부류가 있는 것 같다. 본 상담소에 걸려온 청소년 상담중에는 남학생의 경우 “저는 자위행위를 자주 했는데, 어느 날 자다 일어나보니 잠자리에 하얀 고름같은 것이 묻어있었어요. 혹시 에이즈에 걸린 것은 아닐까요?”라든지 여학생의 경우, “사촌오빠와 어쩌다가 관계를 맺고 말았어요. 근데 생리중이었거든요. 혹시 성병에 걸리지 않을까요? 또 임신되는 것은 아니겠지요?”라는 어리석은 질문을 해오기도 한다.

이 학생들은 성에 관해서도 무지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성지식을 갖고 있으며, 더군다나 여학생의 경우 사촌오빠와의 성관계는 근친간일 수 있고(그 여학생이 일방적으로 당했다면) 만약 서로 좋아서 그랬다해도 도덕과 인륜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이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는 것이 더 충격적

심지어 어떤 남학생은 자기가 카사노바인양 자신의 여성편력을 자랑하기도 한다.

자기는 정력이 너무 넘쳐나서(?)고민’이라는 것이다.

이다.

또 어떤 여학생은(목소리로 보아 분명 10대 청소년일 것으로 추측된다) 다짜고짜 전화해서 ‘애를 뽀러고 하는데 산부인과 좀 소개시켜 달라’거나 ‘애를 낳으면 맡기는 곳이 있다던데 혹시 모르느냐?’라고 묻기도 한다. 심지어 어떤 남학생은 자기가 카사노바인양 자신의 여성편력을 자랑하기도 한다. 자기는 ‘정력이 너무 넘쳐나서(?)고민’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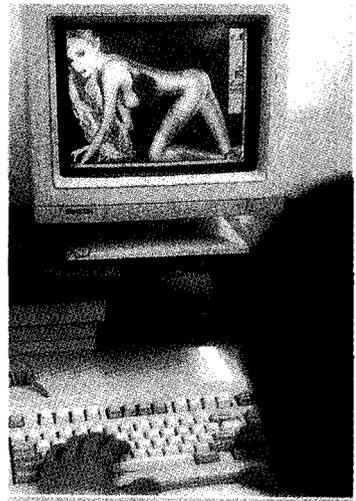
이런 다양각색의 상담을 받으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성지식과 바람직한 성인식을 갖고 있는지 자못 궁금해진다. 더구나 최근 남녀고등학생 3,051명을 대상으로 성의식과 성행동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남학생은 16.7%, 여학생은 5.4%가 성경험이 있다. 이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이미 이것은 현실이다.) 과연 청소년들이 자기정립적인 성인식을 갖고 성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가 우려되는 것이다. 더구나 신문지상에 가끔 등장하는 기사에서 확인되듯이 이들의 성행동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있어 더 걱정이다.

음란매체는 청소년 성교육의 족보(?)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성지식과

성인식, 성행동의 기제를 어디서부터 배우는가? 「가족과 성상담소」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지식을 가장 많이 얻는 곳은 성인용 매체나 음란물이다. 학교선생님과 부모에게 성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고 답한 경우는 전체 조사대상자에서 각각 1.0%, 0.2%에 불과했다.

청소년들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성에 대해 인식하는 곳은 가정이고 현재 청소년들의 지적 성장이나 사회화를 주로 담당하는 곳이 학교인데 청소년들의 성인식이 가정과 학교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 더 많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분



•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지식을 가장 많이 얻는 곳은 성인용 매체나 음란물이다.

청소년들은 넘쳐나는
 성적 에너지를
 건전하게 해소할만한
 적당한 출구를
 찾지 못할 경우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성적 자극에
 쉽게 빠져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명 아이리니다. 가정과 학교에서는 오로지 공부만을 강요하고 사회 역시 청소년들이 향유할만한 문화공간을 제대로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넘쳐나는 성적 에너지를 건전하게 해소할만한 적당한 출구를 찾지 못할 경우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성적 자극에 쉽게 빠져들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사회 성문화 비춰보기

그렇다면 청소년들의 호기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회 구석구석의 성문화는 어떠한가? 우리 사회의 성문화는 단적으로 말하면 성의 이중성, 그리고 성상품화를 특징으로 한다. 우리 나라에는 가부장적 유교문화와 자본주의적 성상품화가 공존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집에서는 가부장적 유교사상에 따라 어른이 될때까지 성행동에 제한을 받고 몸단속을 강요받는다. 청소년의 신체는 이미 성인의 그것과 다를 바 없는데 무조건 자신

의 성충동을 억제하라는 강요는 모순이며 오히려 비인간적이기까지 하다. 반면 사회에 나오면 범람하는 성에 관한 자극물들로 청소년들은 성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되고 갈등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는 남성과 여성에게 주어지는 성규범이 다르다. 남성에게는 순결이데올로기를 강요하지 않고 오히려 '성경험이 좀 있어야 삶의 폭을 넓힐 수 있고 진짜 사나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여성에게는 아직도 조선시대 여인처럼 정숙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가정교육에 있어서도 남학생이 늦게 귀가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친구들과 싸우고 왔을때 오히려 맞고 들어오면 혼이 나지만 여학생에게는 귀가 시간이 정해지고 몸단속이라는 경고가 떨어진다. 이렇듯 남성과 여성에게 서로 다른 이중적인 성규범을 내면화한 남학생들은 남성중심적이고 폭력적인 문화에 길들여

지고(그리하여 잠재적인 성폭력 가해자로 양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기도 하고)여학생들은 수동적이 되고 자기분열과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성상품화는 신체의 일부분만 (특히 성기)을 강조하는 성기중심문화를 양산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몸을 사물화하여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만 전락시키는 점이 문제다. 최근 범람하고 있는 '젓소부인 바람났네'를 필두로 한 「00부인 시리즈」는 여성을 수격(獸格)으로까지 전락시키는 예라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로 인해 청소년들은 바람직한 성문화를 갖지 못하고 사회의 성통념들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A**

(다음 호에는 우리 나라 청소년 성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바람직한 성교육의 방향이 연재됩니다.)